

‘창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 스타트업 체계적 지원 박차

스타트업 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4대 전략, 16개 핵심추진과제
혁신 스타트업 양성 등 목표

김해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정책 5개년(2025~2029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스타트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업투자유치단 내 스타트업지원팀을 신설해 창업 지원 우수기관 벤치마킹,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스타트업 포럼 간담회,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창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내년부터 5년간 창업 전주기 종합지원, 투자재원 조달(펀드 1000억 조성), 창업문화 저변 확대, 스타트업 육성 협업체제 구축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 16개 핵심 추진과제로 김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



김해시청 전경.

역의 앵커기업, 나아가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첫째 전략 산업 연계 기술집약형 혁신 스타트업 양성이다. 이는 선도기업 연계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지원, 선배 기업의 성장DNA 공유 파트너십 운영 등 4개 사업이다.

둘째 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와

인프라 확대로 지역기업 스케일업을 책임지는 펀드 확대 조성, 스타트업 지원 시설 인프라 지속확충 등 3개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 스타트업 지원 시설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세번째는 창업 친화적 환경과 도전적인 창업 분위기 조성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부트캠프 DO-

DREAM을 포함한 4개 사업을 통해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김해시에 유망한 스타트업을 꾸준히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네번째는 지원기관 협력 플랫폼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와 인재양성 강화로 스타트업 소통협의회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활성화, 맞춤형 창업인재 발굴과 육성 특화사업 등이다.

연구기관, 대학, 창업지원기관, 투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고 청소년 모의 창업캠프와 학교로 찾아가는 창업체험 교육 등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김해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인재 양성으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교육청-광주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분담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일 ‘2024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 교통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제안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안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광주G-패스 사업의 어린이·청소년 부분을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분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40%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거창군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거창군은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안전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문고리형 홍보물을 제작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복지위기 알림 시스템 설치 안내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주요 목표로 한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 곤란 가구 ▲폭방·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을 발굴해 긴급 복지 지원 등 공적 복지제도, 민간 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아립 1004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초등학생 영어실력 인증 축제

초중학생들이 자신의 영어실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축제’가 경북에서 처음으로 마련된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30일 경산시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체육관에서 ‘제1회 도전! 영어인증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저하된 학생들의 영어 학력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완수해 인증받음으로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된다.

이 행사에는 학교장 인증을 마친 초등학생 380명, 중학생 160명 등 540명이 참가한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구미시

경북 첫 액화수소 충전소 개소

경북 구미시는 경북도 최초 액화수소 충전소인 선기동 수소충전소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 선기동 수소충전소는 경북 지역 첫 액화수소 충전소다.

SK플러그하이비스가 2022년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돼 75억원의 사업비로 구축했다.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 하루 평균 약 120대의 수소버스가 이용 가능하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

경주시, 3억 투입해 경관관리 나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지자체 디자인 역량 강화 등 목적
중점 추진 권역 3곳으로 나눠 추진

경주시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적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 구상마련에 나섰다.

경주시는 ‘경주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5년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예산은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민간 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지자체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지역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시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역사·문화를 품는다 ▲사람·환경을 담는다

▲시간·공간을 잇는다 라는 비전을 세워 추진한다.

특히 역사적 정체성 확립, 도심 통합 및 연계 강화, 지역자원 활용성, 사업 연계성을 근거로 중점 추진 권역을 3권역으로 나눠 설정했다.

1권역은 원도심(읍성 및 주변), 2권역은 주요 생활권(황성, 동천 등), 3권역은 보문단지로 구분해 차별화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공간환경 여건 분석 및 과제를 도출해 중점 추진권역 기본공간구상을 거쳐 건축 도시 관련 제도와 연계한 실행 방안을 정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조화를 고려한 공간관리 비전 및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광주 상무지구, ‘도시융합특구’ 지정

2026년부터 총 사업비 1.5兆 투자

산업과 주거·여가가 집약된 도심 개발이 가능한 ‘도심융합특구’로 광주 상무지구가 지정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서구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문화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이 집중된다.

광주도심융합특구는 광주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산·학·연 연계가 유리하고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강점을 지녔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부터 총 사업

비 1조5790억원을 투자해 특구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해 오는 203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 첨단 특화사업, 의료·디지털 융합사업, 연구개발(R&D) 혁신사업, 마이스(MICE)·문화 융복합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또 광주도심융합특구 인근 9만1298㎡에는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상무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진행 중이며 광주의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도 구축된다.

광주시는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건설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영덕군, 전국 송이 생산량 13년 연속 1위

전국 송이 생산량 중 22.3% 차지

영덕군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집계한 전국 송이 생산량에서 13년 연속 1위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기록을 남겨 명실상부한 자연산 송이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영덕군은 유난히 긴 가을 폭염과 가뭄이 이어져 송이 생산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 놓여 예년에 비해 2주 정도 늦게 송이가 나오기 시작해 10월 2일 영덕군산림조합이 진행한 첫 송이 공판에서 1.4kg이라는 최소량이 경매됐다.

올해 전국 송이 생산량은 70.6톤 165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으며, 이중 영덕군은 15.8톤 33억 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22.3%를



13년 연속 영덕명품송이 전국 1위 달성.

차지해 13년 연속 전국 1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판매장을 영덕군 민운동장과 영해휴게소에 설치해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의 송이를 맞출 수 있는 ‘명품송이 한마당’을 운영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 반도체 부품·장비기술 개발

1.2억 투입해 4개 기업 지원

경상남도과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경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남 반도체 부품·장비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남의 기계, 소재 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반도체 산업 진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을 들여 반도체 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 품질 향상, 공정 혁신을 위해 4개 기업을 지원해 성과를 내고 있다.

금속웨이퍼 기술 고도화를 진행한

‘메탈C&P’는 2023년도 대비 매출 21%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지유’는 새로운 압전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이 약 3000만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진공기술’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계약이 완료돼 12월 중 납품될 예정이다. ‘디엠’은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아 2025년도 상반기 양산할 계획이다.

경남TP는 수혜 기업의 부품과 개발 제품에 대해 ‘스마트센싱유닛 실증센터’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 성능 및 환경 시험 4건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 특성을 분석해 제품 신뢰성 확보를 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